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3093호 (2020.07.29) 게시기간 : 2021.07.29 발급번호 : EP261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1566-256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사가 있을 때에는 한국기업은행에 분쟁조정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332, K기기업은행 : ☎080-800-0199, IBK기업은행은 금융-평등권을 받습니다.
윤리경영 위한사상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lbkethics@ibk.co.kr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21. SPRING | VOL.21



CONTENTS

2021 SPRING | VOL. 21

04

FOCUS ISSUE 1

5일장의 미래는?
공매도의 기능과 역할 검토

10

FOCUS ISSUE 2

코로나19가 가져온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

16

GLOBAL REPORT 1

글로벌 그린뉴딜 동향과 관련 금융상품 전망

20

GLOBAL REPORT 2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바이든 대통령 VS 시진핑 국가주석 총력전

24

TAX GUIDE

비상장주식 증여 절세전략

26

INVESTMENT

2021년 2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32

WM SPECIAL

자산관리 1번지에서 신뢰만으로 승부하다
강남WM센터

36

THE LAW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법

40

TRAVEL AGAIN

걸음걸음마다 다채로운 항구 도시
이탈리아의 나폴리 VS 한국의 통영

48

CLASSIC CLASS

아름다운 선율
잊히지 않는 음악

50

TOAST TO THE FLAVOR

꾸밈없이 솔직한
내추럴 와인

52

IBK FUND

이달의 추천 펀드

발행일 2021년 3월 5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2

기획·디자인·제작 이팝 02-514-7567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에 베팅해 수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공매도가 주식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증시가 견지해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글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5일장의 미래는?

공매도의 기능과 역할 검토

공매도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다

가까이 지내는 증권사 간부가 이런 얘길 한 적이 있다. “작년 증시에서 어느 연령대 직원들 수익률이 제일 높았는 줄 알아요? 용띠들이야. 용띠.” 처음에는 ‘76년생 용띠’를 떠올렸다. 한데 듣고 보니 그 얘기가 아니었다. “이 친구들은 겁이 없더라고. 증시가 너무 불타면 우린 이 카루스의 날개를 떠올리거든. 근데 용띠들은 기름을 부어요. IMF랑 금융위기 겪어 본 우리 세대는 감히 못할 일이지.” 여기까지 듣고야 알아챘다. ‘아, 88년생 호돌이 용띠 얘기구나.’ 수년 전 헤지펀드 시장 초기에도 X, Y세대 대표들이 주목받긴 했지만, 이건 좀 신선한 충격이었다. 작년처럼 물러코스터를 탄 증시에서 ‘88년 용띠’가 백전노장 ‘76년 용띠’를 추격했다니. 세상이 뒤집힌 코로나 시대를 절감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작년, 한마디로 우린 총 맞았다. 코로나19가 당긴 방아쇠는 사회 전반을 꿰뚫었고, 그중 가장 변화가 큰 시장이 있다면 단연 증시를 꼽겠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지수를 방어한 동학개미에 이어 미국 증시를 드나드는 서학개미, 나아가 군대에서 투자하는 병정개미까지 등장했다. 그렇게 증시에 뛰어난 개미 선수단이 줄잡아 800만 명, 이 가운데 60%에 이르는 약 600만 명이 ‘불장’이었던 지난해에 계좌를 틀었다. 여기서 절반 이상은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 몫이다. 가진 것도 물려받을 것도 없는 MZ세대에게 증

시는 절박한 동아줄이다. 증권사에서 빛내 투자하는 20~30대의 신용 용자 비율이 1년 새 세 자릿수로 폭증한 것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기성세대를 향해 가는 내 포지션은 그래서 이해 반, 걱정 반이다. 엔터주 공모 직후 “주가가 떨어졌으니 환불할 수 있냐.” 하던 이들도, 주식투자 지침서를 베스트셀러 1등으로 밀어 올린 것도 이들로 짐작돼서다. 증시의 숙환 같았던 공매도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부력에 이 젊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한다.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등관하게 한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라는 구호는 ‘제발 공매도를 멈춰요.’로 읽힌다. 어느 틈에 ‘금지 천국, 허용 지옥’ 구도가 만들어졌고, 금융위원회는 결국 5월 2일까지 한 번 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우려

증시 참가자라면 이제 낯설지 않을 ‘공매도(空賣渡)’는 쉽게 말해 내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주식을 사 되겠다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의 하락에 베팅해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값이었다면, 애초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작년 미국 증시를 혼란에 빠뜨린 트럭 없는 트럭 회사 ‘니콜라’ 사태처럼, 기업가치 이상으로 급등한 주가에 과속방지턱을 댄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도해 특정 기업의 주

가를 고의로 낮춘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외국인이나 기관에겐 쉬운 공매도가 개인에겐 사실상 막혀있는 데다, 불법인데도 무차입 공매도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개미들을 흥분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를 낮추는 공매도의 여러 문제점 속에서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쉬어 가길 결정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둔 여의도의 기류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공매도를 다루는 방식이 좀 걱정스러운 건, 하나의 금융기법인 공매도가 절대선 혹은 절대악으로 규정되는 상황 때문이다. 최근 미 증시를 헤집어 놓았던 일명 ‘게임스톱 사태’를 고려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문제는 결말이다. 한국의 동학개미에 비견될 미국의 로빈후더들이 봉기하면서 기관이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결국 시장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다.

시장을 움직이는 공매도 거래 대금의 역할

‘삼천피(코스피 3000)’에 이어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가 열리면서 올 초에만 개미들은 10조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으니, 대량

으로 주식을 내다 파는 세력은 누가 됐든 곱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개미 중 한 사람인 나 역시 투자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면 당장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크고 길게 보아 금융 시장 전체의 이익과 효율성에 어느 쪽이 부합하는지는 좀 더 냉철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증시를 고무대야에 비유해 보자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수용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넘쳐날 때 일부가 대야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식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선 방어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겠지만, 단기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매도가 반드시 가격 하락만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밀린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값아야 하기 때문에 매도만큼 매수 주문이 늘어나는 효과도 생긴다. 잠시 정지 신호를 주지만, 유동성 공급과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 증시 전반에 활력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에 그친다. 이 적은 비중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시장을 움직이는 데에는 개인의 동조 심리가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체급 구분 없이 붙는 증시의 특성 때문에 특정 기업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개인들은 긴장한다. 개인들이 모르는 악재를 프로 투자자들은 알고 있다는 소문이 메신저로 번져 나가면 투매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공매도 잔고가 큰 기업의 주가가 단기에 급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때 개인 투자자는 일방적인 피해자일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참가자일까, 한번쯤 고민해 볼 부분이다.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만드는 공매도

공매도가 갖는 또 다른 기능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주가가 조정 없이 내달리지만 하면, 첫 차에 탑승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좀체 기회가 오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한미 양국 증시에선 뚜렷한 최대공약수가 발견됐는데,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장을 ‘희소식 민감장’이라 이름 붙이고 싶다. 예컨대 ‘실적이 나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괜찮았다.’든가,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나빠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더 오래 뿌려낼 수 있으니 호재’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 난무했다. 이런 장에서 공매도의 기능이 사라지면, 이론적으로는 적정 가치를 뛰어넘고도 주가가 우상향 곡선만 그리게 된다. 흔히 익절의 적절한 타이밍이라 일컫는 ‘어깨’의 지점을 가늠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주식의 손바뀜은 줄어들는다. 하지만 증시에는 현재의 주주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불펜에는 언제든 기회를 보아 등판하고자 하는 선수단이 존재하고, 홈팀뿐 아니라 원정팀을 응원하는 공매도 세력도 시장을 구성하는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쉽
없이 달려가던 어느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
로나19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주가를 폭락시키는 악재가 될지도 모
른다. 공매도는 그런 충격을 줄이는 에어백 역
할을 한다.

물론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 공급이 적은 일부
종목에 과도한 공매도 물량이 몰린다면 인위
적인 주가의 하락이나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제도의 순기능 전체를 외면한다면 기
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공매도의 문제
점은 뒤꿈치에 구멍이 난 양말을 걷는 마음으
로 금융당국이 꼼꼼히 바느질해 나가야 할 부
분이라고 본다. 공매도 잔고가 이상 급증할 경
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지난해처럼 주가
가 단기 급락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할 수 있는 정책적 융통성이 있는 만큼 순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제도를 고
쳐 쓰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외풍에 취약한
이른바 작은 종목에 대한 '작전' 세력의 장난은
주가 하락뿐 아니라 인위적인 부양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
위적 부양 이후의 시나리오는 영화에서 보듯
대개 비극적이다.

홍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구현하는 거래 방식에
대한 불만도 찬찬히 살펴보자. 기관이나 외국
인 투자자들이 서로에게 주식을 빌리는 대차
시장에 비해 개인은 기관에게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쉽지 않다. 개인의 대주 시장이 기관 간
대차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
돼 있다는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다. 금융당국
도 이런 지적을 수용해 개인이 보다 쉽게 주식

을 빌리고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어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단 증거금이나 상
환 기간 등에서 큰손인 외국인이나 기관과 같
은 조건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개인 대출 시장에서도 신용등급이
나 소득, 담보에 따라 이자율과 대출 가능 금액
이 나뉘듯 주식을 빌리고 갚는 시장에서도 자
금 동원력이나 신용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기관
사이의 대차거래에서 증권사들은 105%의 증
거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주식을 빌릴 수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 통상 140%의 증거금
을 내야 대주 시장에서 주식을 빌려줄뿐더러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
도 많지 않다. 상환 기간도 다르다. 개인에게 길
어야 두 달의 짧은 대여 기간을 허락하지만, 기
관은 만기 연장이 쉽다. 대신 언제든지 상환 요구
를 받을 수는 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절차
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신용도에서 비롯되는
대출 조건의 차이로 볼 여지가 있다.

여러 고민거리 속에서도 공매도 논란 이후
나온 통계들은 여전히 개미 투자자들의 부야
를 돋운다. 증권사들이 공매도로 7년간 무려
3500억 원을 벌었고, 70% 이상의 수익이 외국
계에 돌아갔다는 통계 아래엔 “이래서 외국인
기관 판”이라거나 “이런 공매도를 허가하자
는 금융위는 누구 편이야.”라는 댓글이 줄을 잇
는다. 아마도 공매도만 아니라면, 작년의 마법 같
은 랠리가 재연될 수 있다는 믿음이 기저에 깔
려 있는 비판일 것이다.

하지만 우상향 랠리는 올해 초 11주 만에 막을
내렸고, 2월 들어선 구간마다 과속방지턱이 설
치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증시가
호랑이 등에만 올라타고 있어도 쪽 가는 '물수
능' 같은 장이었다면, 올해는 중간중간 벙커를
빠져나가야 하는 '불수능' 같은 장이 될 전망이
다. 선진국 중에선 한국만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식이면 짐 싸
겠다는 외국인들의 으름장을 곧이곧대로 믿진
않지만, 국내 증시의 약 32%를 차지하는 외국
인 투자자들은 입이 댓 발 나와 있다.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들은 국가 신용
등급 평가에서 공매도 허용 여부를 중요한 시
장 평가 기준으로 보는 게 현실이다. 주식 파는
사람이 값 떨어뜨려 밍다고 못 팔게 만들면 손
님이 들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손님 줄어드는 시
골 5일장은 개장 날 판이 벌어지다가 대개 사
라져 갔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매력 떨어지는 5일장 신세가 되도록 만들 수가
없는 노릇 아닐까. 값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흥
정은 계속돼야 한다.

●
주가가 단기 급락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할 수 있는
정책적 융통성이 있는 만큼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제도를
고쳐 쓰는 게 바람직하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와 밀접한 거주 환경, 즉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 틀에서 이 흐름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코로나19가 가져온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는 중이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산업에서는 언택트, 즉 직원과 소비자 간 접촉 없이 구매하는 행위가 일반화되었고, 우리 경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인 뉴노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보다도 작고 미세먼지 입자보다도 작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힘은 막강하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풍토병이 되거나 더 독한 전염병으로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집의 기능에 대한 욕구가 다변화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쉬는 공간에서 일, 공부, 쇼핑, 운동, 취미, 오락 등 융복합 공간으로 집의 경계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주거공간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김난도 교수는 집의 기능이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레이어드 홈’이라는 트렌드로 정의했다. 주거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좀 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최근 방송가에 서도 집을 보여 주는 방송, 이른바 ‘집방’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우리의 생활 패턴이 ‘집’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집’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주거형태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
 코로나19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집의 기능에 대한 욕구가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이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일, 공부, 쇼핑, 운동, 취미, 오락 등 융복합 공간으로 경계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주거공간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

코로나19 이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1~2인 가구 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용면적 59㎡ 이하의 소형 아파트 인기가 점점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부동산 투자자들도 전용면적 84㎡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에 주로 투자를 하곤 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업무 형태의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더욱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됐다.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재택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형 이상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외식하기가 힘들니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공간이 필요하고 스포츠 센터에 가지 못하니 운동 시설도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콕(집에 틀어박힌다는 의미)’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좀 더 넓고 쾌적한 중대형 아파트의 수요 증가는 일견 당연해 보인다. 또한 낡은 구축 아파트보다는 수납공간이 많고 공간 활용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컨드 하우스가 떠오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남해 국가대표급 정원인 태화강을 품은 울산은 이미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코로나19는 여가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연 언택트 수요 증가로 나타난다. 국내 숙박업체 조사에 의하면 타인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펜션의 이용자 수는 2020년 대비 무려 105% 증가했고 독채형 펜션의 이용자 수도 93% 증가했다.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독채형 펜션의 경우 2021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 예약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휴양지 중심의 주거상품을 구매하도록 자산가들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단독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신조어도 등장했다. 직장과 가까운 집을 의미하는 ‘직주근접’을 넘어 주거 공간과 직장 비즈니스 공간이 하나로



다. 물류창고는 대형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동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도심에서는 장소 마련이 어려워 대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최근 민원 등의 문제로 인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사무실의 탈중심화 거점 오피스가 부상한다

오피스 위치에 대한 기존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 초도심에 위치한 오피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인식이 바뀌는 추세다. 한 취업 포털사이트의 '재택근무 현황'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543명 중 54.5%가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76.4%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한계로 인하여 다시 오피스로 출근하는 업종도 증가 중이다. 향후에는 거점 오피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무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 오피스란 각 지역마다 거점을 두고 분산하여 일할 수 있게 한 사무실이다. 출퇴근하는 중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고, 통근 거리를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공유 오피스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홈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의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합쳐지는 '직주일치'라는 단어다.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대기업은 전체의 73.2%가 집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현관문 손잡이를 만지는 것도, 엘리베이터를 타인과 동승하는 것도 불편해졌다. 이로 인해 현관 출입구, 주차장을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현관 등을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독 형태의 주택 선호도가 증가하며, 수도권 외곽의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물류창고가 떠오른다
물류창고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부동산 상품이다. 비대면, 비접촉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재고 물품을 보관할 창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특히 서울은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거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이사를 포기하고 인테리어에 나서는 가구가 증가 중이다. 실제로 가구업체인 이케아와 한샘, 현대 리바트 등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더불어 전자제품 관련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집에서도 워라벨을 찾아야 하는 시대다. 이에 알파룸, 펜트리, 테라스와 같이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구조와 공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된 집이 더욱 각광받을 것이며, 또한 세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조 가능한 아파트도 더욱 인기를 끌 것이다. 과거에는 확장을 통하여 공간을 없었던 발코니와 베란다를 화초 가꾸기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변화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거 기능이 확대된 만큼 과거처럼 획일화된 건축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설될 것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만큼 좀 더 쾌적한 공간 수요로 인해 층간 소음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 등에는 방역 관련한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빛과 그림자처럼 기존에 수익성 부동산 중 하나였던 상가의 경우 공실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배달 위주의 업종이 잘되기 때문에 상가는 대형화된 공간이 필요 없게 되어 공간이 재배치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그린뉴딜 동향과 관련 금융상품 전망

그린뉴딜의 핵심인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클린에너지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그린뉴딜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린뉴딜 ETF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금융시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글.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

그린뉴딜의 등장 배경

기후변화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화두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간사회에 다양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 세계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정도 상승하여 해수면이 적어도 2피트가량 상승하게 된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 10억 명의 인구가 거처를 이동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은행 리포트에서는 극단적인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매년 26백만 명이 빈곤계층으로 추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타개했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

다. 지난 2007년 미국의 토마스 프리드먼이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에 착안하여 이른바 그린뉴딜을 통한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린뉴딜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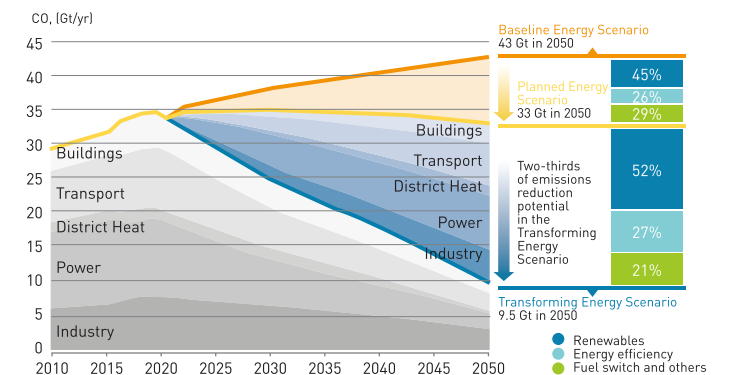
에너지 대전환 계획

그린뉴딜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그 핵심은 에너지 대전환(Energy Transition)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에너지 전환 계획(Energy Transformation Scenario)에 의하면, 2050년 탄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탄소 배출 수준의 70% 정도를 감축하여야 한다. 2050년까지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3.5% 줄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탄소가스 배출량은 매년 1%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탄소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스 배출량 감축 예상치

The bulk of emission reductions: Renewables and efficiency
Energy-related CO₂ emissions, 2010-2050



출처: IRENA

에너지 대전환(Energy Transformation)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화석에너지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며, 둘째는 빌딩, 운송수단(전기차) 등 다방면에서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IRENA 자료에 따르면,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전환을 목표로 50% 이상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 증가(Energy Efficiency)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의 25%를 달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증가를 통해 탄소가스 배출 감소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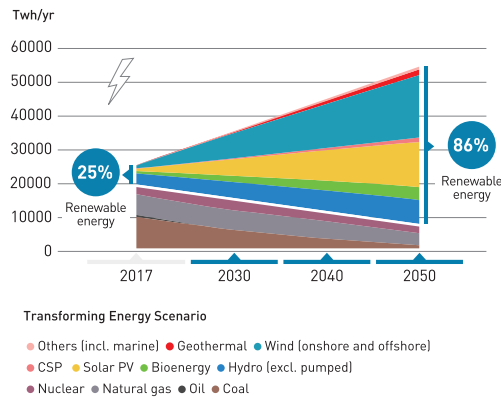
화석연료	감축목표	
	2030년	2050년
석탄	41% 감축	87% 감축
원유	31% 감축	70% 감축

출처 : IRENA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으로 기존 화석연료는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75%까지 감축이 필요하게 된다.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화수준은 현재 25%에서 8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현재 20% 수준인 재생에너지 전력이 2050년, 거의 50%까지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제조업과 건물에서 소비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상승하고 운송 부문에서는 현재 1% 수준인 전기동력이 2050년, 40%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Solar, wind and other renewable power generation until 2050

Breakdown of electricity generation and total installed capacity by source, 2017-2050



출처 : IRENA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주도적 역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은 전력생산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어 전체 전기수요의 1/3정도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은 전체 전력수요의 25%를 공급하게 되어 2017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공급능력 확장은 태양광이 풍력보다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과 더불어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클린에너지 투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여야 할 투자처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 탄소효율그린뉴딜 ETF 현황

상품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ARIRANG 탄소효율그린뉴딜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자산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기초지수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			
지수산출기관	KRX-S&P			
신탁원본액	1000억 원	500억 원	120억 원	80억 원
1좌당 가격	1만 원			
총보수(운용보수)	0.15%(0.12%)	0.30%(0.25%)	0.20%(0.17%)	0.20%(0.16%)
지정참가회사(AP), 유동성공급자(LP)	키움, NH, 미래, 메리츠, KB증권	DB, 하이, 키움, SK, 메리츠, NH, KB증권	SK, 메리츠, 삼성, 한화투자증권	NH, KB, 키움, 메리츠, 미래, 신한금융투자

자료 : 한국거래소

그린뉴딜 ETF 전망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ETF들이 투자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작년 초 대비 100% 이상 상승하여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나,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에너지 전환작업에 따른 각국의 그린뉴딜정책으로 향후 20~30년간 투자시장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투자처로 보인다.

클린에너지 ETF 성과

순위	TICKER	ETF명	수익률(%)	
			연초 이후 성과	최근 1년 성과
1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	25	216
2	TAN	INVESCO SOLAR ETF	15	216
3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13	194
4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	20	193
5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29	172
S&P 500			5	18

기준 : Bloomberg, 2021.2.17.

장기적인 관점에서 클린에너지에 투자할 필요

가 있다. 투자자들은 급격하게 기존 에너지 투자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장기적 호흡으로 기존 에너지에서 클린에너지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도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인한 원유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둘째, 작년 하반기 이후 클린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조정 가능성

따라서, 현재 클린에너지를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이는 클린에너지 가격조정 시 투자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분산투자할 필요가 있다. 클린에너지 투자는 단기적인 투자테마가 아니라 향후 10~20년간 투자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므로 장기적인 호흡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GLOBAL REPORT 2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바이든 대통령
VS
시진핑 국가주석 총력전**

미국과 중국의 6G(6세대 이동통신)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 치열하다. 중국 정부는 이미 세계 최초로 6G 용 인공위성 텐옌-5호 발사에 성공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6G 개발을 위해 첨단 기술의 R&D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자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글: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6G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벌써부터 6G(6세대 이동통신)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을 시작했다. 6G는 100GHz 이상 초고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5G보다 50배 빠른 전송 속도와 10배 빠른 반응속도 등을 지원하는 차세대 이동통신을 말한다.

중국은 2020년 11월 7일 산시성 타이위안 우주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6G용 인공위성인 텐옌-5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정부는 이 위성을 통해 스마트시티, 농업, 임업, 재난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6G통신을 시험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6G용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5G와 마찬가지로 6G에서도 미국을 앞서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6G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통신표준 개발업체인 통신산업솔루션연합(ATIS)은 지난해 10월 ‘넥스트 G 연합체(Next G Alliance)’를 출범시켰다. 이 연합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버라이즌, 퀄컴, 구글, AT&T 등 쟁쟁한 미국 테크 기업들은 물론 한국의 삼성전자와 스웨덴의 에릭슨도 참여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전략은 우선 자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양자·고성능컴퓨팅, 5G·6G, 신소재, 청정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R&D) 분야에 4년간 3000억 달러(약 340조

원)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최우선 투자(investing in America first) 정책으로 중국과 필사적으로 싸울 계획”이라면서 “미국의 공장에서, 미국인 노동자가 만든 첨단 제품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첨단 기술의 R&D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려는 이유는 자국의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을 육성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할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노력

바이든 정부의 전략 중 하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도전이 거센 AI, 반도체, 5G 등의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연대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는 최강이지만 생산능력은 취약한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은 전 세계의 12%에 불과하다. 퀄컴·엔비디아 등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기업이 대부분이고, 생산은 대만·한국 등 외국기업들에게 맡기고 있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이미 15%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의 점유율은 10년 후 24%로 증가해 대만을 제치

고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미국으로선 대만, 한국 등과 반도체 동맹을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반도체 업체들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간에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일종의 ‘반도체 동맹’을 맺을 경우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TSMC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고 인텔 등 미국 반도체업체들과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TSMC는 오는 2024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약 13조 2500억 원) 규모의 5nm(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의 반도체 전문지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스텔스 전투기나 항공관제, 유도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한국, 대만 등과 함께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대중(對中)제재 조치 강화 전략

바이든 정부의 또 다른 전략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이전 강요 등을 저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재들을 유입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한 기고문(2020년 3/4월호)에서 “중국을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가만히 둔다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계속 훔쳐갈 것이고, 정부 보조금을 통한 불공정 계

임을 일삼으며 미래 기술과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 미네소타주 선거 유세에서 “중국 기술 분야의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의 장비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며 미국 기술을 도용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의 조사를 통해 중국의 기술 절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강력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USTR 대표에 대만계인 캐서린 타이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수석 자문위원을 발탁했다. 부모가 모두 대만 출신 이민자인 타이는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 워싱턴DC에서 성장해 예일대를 졸업하고 중국 광저우의 중산 대학에서 2년간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USTR에서 근무하며 WTO에서 중국과의 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등 중국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다.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그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농산물, 가전기기의 수출 보조금, 광물의 수출규제에 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중국을 WTO에 수차례 제소한 적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기술 표준을 내세워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계의 기술 표준은 미국과 서방 및 중국으로 양분될 수도 있다. 폴 트리올로 유라시아그룹 기술정책 분석가는 “바이든 정부는 첨단 기술과 기초기술 분야에서 통제할 분야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이며, AI와 양자 컴퓨팅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보다 더 적은 기술을 통제하더라도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술에는 더 높은 장벽을 쌓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도체 자립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

중국 정부도 7대 신(新)인프라로 꼽히는 5G, AI, 빅데이터 센터, 산업 인터넷, 특고압송전 설비(UHV), 광역철도망, 친환경차 충전시설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과학기술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 혁신

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말 그대로 중국은 첨단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결정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반도체 기술을 확보해야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제 산업 표준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표준 2035’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표준 2035’는 첨단 기술 개발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이은 다음 단계로, 첨단 기술의 국제 산업 표준을 확보하는 계획을 말한다. 말 그대로 첨단 기술의 표준을 중국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다.

비상장주식 증여 절세전략

비상장주식평가는 주식가치 시점에 따라 세부담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

글. 김연주 세무사



비상장주식평가의 중요성

비상장주식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인 주식가치가 최저인 시점에서 주식이전을 하면 이전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낮아지는 시점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사전적인 플랜을 준비한다면, 주식이전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평가액은 주식이전을 통한 가업승계의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더불어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 예상 가능한 기업의 미래가치와 향후 부담하게 될 상속세의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상속세와 그 재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상장주식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비상장주식평가 방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하였을 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청산가치 개념이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수익력을 예측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1)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1주당 평가액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80%를 비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즉,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text{주당 평가액} = \text{MAX} \left[\frac{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3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5}, \text{순자산가치} \times 80\% \right]$$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인 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이 해당된다.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한 절세전략

예컨대 2021년 3월 5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비상장주식평가는 순손익가치 기준 직전 3개년이므로 2020년, 2019년, 2018년 순손익을 3, 2, 1 비중으로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는 2021년 3월 5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결산해야 한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 주식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하락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고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하여 순손익가치를 낮추고 그 다음 연도에 주식을 증여한다면 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하고 최대 100억 원까지(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 10%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킴으로써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고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비하여 임원퇴직금의 지급배수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 현실화하여 순자산가치를 낮출 수도 있다. 더불어 매출채권 등 채권잔액 검토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주식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



2021년 2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2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주식시장 역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산시장이 변곡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산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글.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조정 이후 주식시장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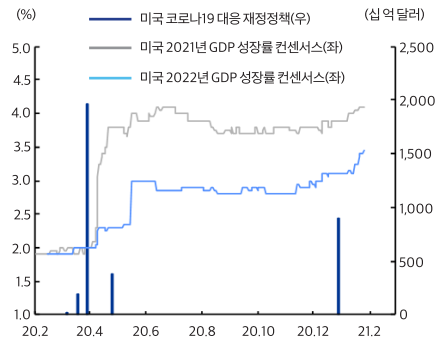
국내 증시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KOSPI는 1월 11일 신고점(3,266P)을 기록한 뒤 전고점을 뚫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 급등과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발단이었지만, 핵심은 결국 증시 과열에 대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IT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주가가 이미 내년 이익 수준까지 끌어와 선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조정을 거친 증시의 다음 방향은 상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강세장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의 이익 및 경제 펀더멘털의 기대치가 추가로 높아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거론돼 주식시장에는 너무나 익숙한 재료들이지만, 추가 부양책과 백신 접종을 통한 펀더멘털 상방 압력의 크기와 시점을 가능하기는 어렵다. 아직 각종 전망치에 기대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미국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우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 모두 긍정적이다.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민주당 주도하에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에 한해서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 요구하는 절차로, 지금과 같은 블루웨이브 상황에서는 상/하원에서 비교적 쉽게 법안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원 일부의 이견으로 부양책 규모와 항목이 조정될 수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기조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효과도 우호적이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지만 백신 접종이 선행된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 효과가 의미적이다. 대표적인 백신 선행지역은 접종률이 40%를 넘는 이스라엘인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스라엘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타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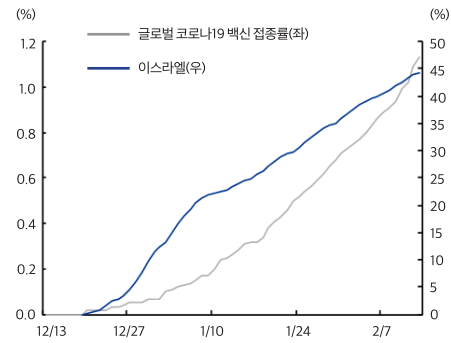
미국 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2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시장 역시 2분기 중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 추가 부양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기존의 실업수당 추가 지원이 종료되는 3월 중순 이전에 부양책을 통과 및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프라투자를 비롯한 추가 정책도 잇따라 논의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증시 모멘텀을 뒷받침할 수

미국 코로나19 부양책 발표, GDP 컨센서스 상향으로 연결



자료 :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추이



자료 : Our World in Data, CEIC, IBK투자증권

있는 요소다. 2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도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보건계량분석연구소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만큼 하향 안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봉쇄조치 강화 효과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그리고 북반구 동절기 종료라는 계절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규 확진자가 축소되는 만큼 경제 활동 정상화와 경제지표 개선, 기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의 채권투자

1분기 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 배경에는 바이든 취임 후 재정부양책 확대와 백신 보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 감소세, 일부 경제지표 호조 등이 흔재되어 있다. 특히 미국 물가 상승 가능성이 타진되면서 글로벌 장기금리는 상승세를 보였고, 그와 함께 BEI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BEI(Breakeven Inflation)란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것으로 산출된다. 통상적으로 한 국가의 10년 명목 국채금리에서 10년 물가연동국채(이하 물가채) 금리를 뺀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물가수준을 반영해 투자금의 가치가 보장되는 물가채를 선호하면서 물가채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 명목 국채금리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BEI가 상승하게 되므로 B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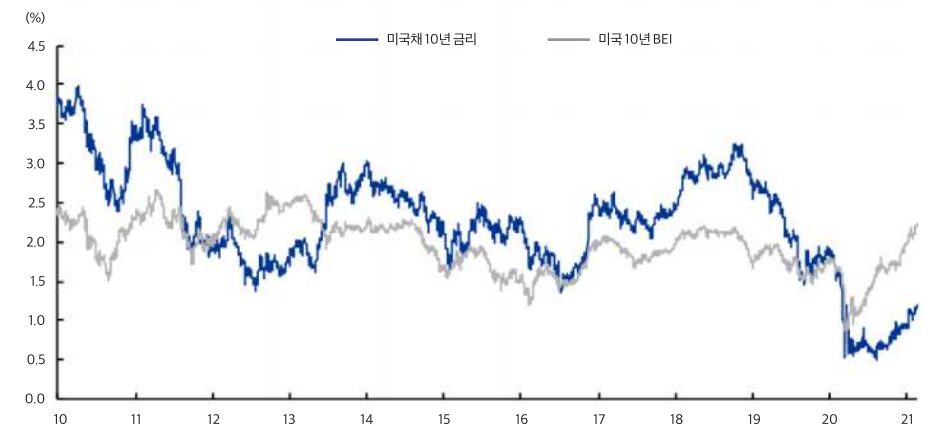
지표의 상승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9월부터 2월경까지 미국 국채금리보다 BEI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용시장의 극심한 부진에 비해 소비활동의 타격이 각종 정책 덕분에 상대적으로 덜 했다. 백신 보급과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현금 지급 등 정책의 효과로 인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고용 확대와 소비 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격적인 정책이 추가로 출회될 수 있고, 코로나19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확대 시 이연된 수요가 발현되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것이다. 더불어 지난해 팬데믹 발생 후 급락했던 국제유가와 물가지표 자체에서 발생하는 기저효과도 3~4월 이후 가시화되므로 미국 물가 상승은 수요와 공급 측 압력이 모두 존재해 기대에 그치지 않고 2분기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국제유가 및 헤드라인 물가의 기저효과가 크게 감소한다. 또한 정부지출을 통한 물가 상승은 다소 한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개선되어 선순환을 보여야만 한다. 즉, 현재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와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물가가 꾸준히 올라가기보다는, 2분기에 고점을 보인 후 다소 꺾일

미국 10년 명목금리와 BEI 상승

자료 : Bloomberg, IBK투자증권



수 있으므로,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BEI 상승과 명목금리 상승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책 효과와 이연된 소비 반영,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2분기까지는 강한 편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채의 투자 시점도 하반기보다는 2분기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시장의 변곡점

2분기 자산시장은 변곡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산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2분기에 글로벌 코로나19 상황이 추가로 안정되고, 백신 보급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위험자산 강세 요인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정부들의 재정정책 지속, 작년 2분기 글로벌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 펀더멘털을 앞서 반영한 금융시장은 2분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하반기 펀더멘털 환경을 선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매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저효과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경제가 일정 수준 회복하면서 추가로 강한 경기부양책이 나오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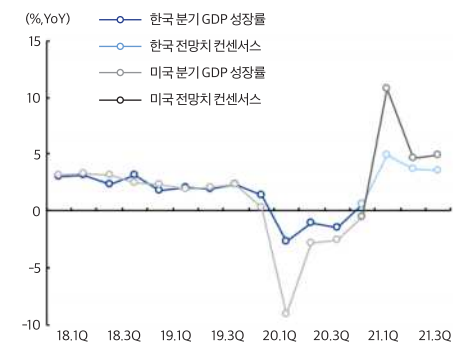
추가 정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시장은 자연스럽게 향후 정책의 되돌림 또는 정상화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다. 수요 개선과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도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이 단행되지는 않더라도 그동안 자산시장의 주요 팩터가 코로나19와 정책, 유동성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자산가격 방향에 변화를 주는 재료가 될 것이다.

리스크 요인들도 있다. 먼저 신용위험의 표면화 가능성이다. 코로나19 위기 발발 이후 투입된 유동성이 여러 신용 문제를 덮어 줬지만 정상화 과정에서 그 문제들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금융불균형도 불안 요인이다. 적극적인 정책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기대해도 현재 자산가격과 실물경제의 괴리는 과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은 2분기 고점을 찍고 완만한 조정 흐름을 예상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경우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위험성이 더 크더라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경우 원유 등 원자재 투자 매력도 여전히하다는 판단이다. 과거 경제성장률이 고점을 찍고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주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원자재의 투자 매력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의 분기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과 이머징 주가지수



주: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미국, 유로, 일본, 중국의 분기 M2 합계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강남WM센터

자산관리 1번지에서

신뢰만으로
승부하다

고객과의 신뢰를 통해 오늘도 '자산관리 명가(名家)'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강남WM센터. 주변에도 여러 금융회사
의 자산관리 센터가 많지만, 강남WM센터를 찾는 고객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는다. 이는 기본을 지키는 태도와 직원
들의 빼어난 역량 때문이다.

글. 임산하 사진. 김범기



(왼쪽부터) 박정선 부센터장, 이현희 팀장, 최희숙 센터장, 정주영 대리, 전찬석 PB팀장, 김새봄 대리

기본에 충실한 강남WM센터

‘고객만을 위한 자산관리’로 고객과의 신뢰를 두텁게 쌓는 데 주력하는 강남WM센터. 이른바 ‘자산관리의 1번지’라 불리는 격전지에 위치해 있지만 언제나 ‘기본’에 충실해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고객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진실된 방법입니다.”라고 말하는 최희숙 센터장은 고객과는 마음을 다해 진심을 나누고, 직원들과는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안팎으로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특히 금융시장 동향이나 산업 전망 등의 주제로 직원들이 함께하는 심층적인 토론은 강남WM센터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 주었다.

출중한 직원들의 훌륭한 단합력

강남WM센터는 능력이 우수한 소수의 인재들이 모인 곳으로, ‘소수정예’의 사전적 정의가 정확히 들어맞는 곳이다.

PBA로서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을 진행하는 정주영 대리와 김새봄 대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합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고객에게 신망받는 이현희 팀장과 공학 엔지니어로 근무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전찬석 PB팀장. 그리고 지식과 노하우로 무장한 강남WM센터의 에이스 박정선 부센터장까지. 빼어난 역량을 가진 이들은 그들만의 소통문화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 매일 ‘자산관리의 1번지’에서 승기를 잡는 까닭은 직원 개인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단합이라는 끈이 있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유리한 선택만을 고집하다

자산관리의 핵심은 고객과의 관계에 있다. 고객에 대해 잘 알아야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흔들림이 없다. 강남WM센터는 직원들 각자의 ‘전 고객 전담화’로 섬세하고 날카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집중한다. 자산 보유상황 등과 같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어떤 경우든 고객의 안심을 최우선에 두며, 투자상품 가입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하다.

“당장의 실적으로는 다소 불리한 선택이더라도 고객님의 자산관리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몫입니다.”

최희숙 센터장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다. “100에서 1을 빼면 99가 아닌 0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하는 그는, 눈앞의 ‘1’을 포기할 줄 아는 판단력으로 센터를 이끈다.

항상 ‘고객만을 위한 자산관리’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강남WM센터. ‘기본’을 중시하는 이곳이 내일도 승기를 잡을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법

글
안수남 세무사

**종합부동산세법이 달라진다.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를 겨냥한 개정안이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여 차례가 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초기에는 과세 강화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난해 연달아 발표한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취득과 보유, 그리고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과세강화대책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보유세는 그대로 둔 채 거래세를 높이는 정책을 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레 ‘매물잠김 현상’을 불러와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질타를 받게 되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현 정부는 방향을 틀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시행하였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중부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과세되는 중부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부세 개정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주택에 대한 중부세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있는데 중과세율이 종전(0.6~3.2%)에 비해 거의 2배 수준(1.2~6.0%)으로 인상되었다. 중과세율 적용대상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소유자 또는 전국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해당된다.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2) 세부담상한율 인상

재산세나 중부세 같은 보유세는 전년도에 부담한 세액에서 일정비율까지만 세부담을 높일 수 있는데 이를 세부담상한율이라고 한다. 종전 조정지역에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였는데 조정지역 2주택자도 300%로 인상되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중부세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중부세 평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기본공제 6억 원(1세대1주택자는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70%를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적용했는데 2017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서 올해는 95%, 내년인 2022년도가 되면 100%가 적용된다.

4) 2021년도 중부세 예상 인상률은 250% 이상

중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한다.

$$[\text{공시가격} - 6\text{억 원}(9\text{억 원})] \times \text{공정시장가액비율} \times \text{중부세율} = \text{산출세액}$$

$$\text{산출세액} - \text{세액공제} = \text{납부할 세액}$$

올해부터는 중부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가 모두 인상된다.

중부세의 근간이 되는 ①공시가격을 향후 시가를 반영하는 수준(현재 70% 수준을 90%로)으로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며 이미 실행 중에 있다. 최근 수도권은 매년 10%가 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4구는 20%까지 상회하기도 했다. 그러한 데다가 ②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5% 인상되었고 ③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2배 가까이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④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상한율마저 200%에서 300%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올해 중부세는 전년에 비해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소 2.5배에서 최대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인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향후 3년간 인상률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지난해 다주택자로 종과세되어 2천 5백만 원 정도 부담한 경우라면 향후 4년 후에는 1억 원대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종부세 절세대책은 무엇일까?

①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를 하므로 일단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은 보유실익이 없는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다.

우선 양도세 부담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한다. 즉,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 비조정지역주택 → 종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이나 입주권 → 종과세대상 중 세부담이 적은 주택(올해 5월 31일까지 처분해야 절세됨) 순으로 처분하되 기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② 보유할 실익이 있는데 양도세 부담이 큰 주택은 처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족 간 증여나 매매를 통해 분산 소유하여 인별 주택수를 줄인다.

증여대상 주택은 수증자, 증여 후 양도시기, 증여당시 시가와 공시가격, 순수증여로 할 것인지 부담부증여로 할 것인지, 전체 또는 일부를 증여할 것인지에 따라 각종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실행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③ 부부 간 공동소유주택은 단독소유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1세대1주택자라면 부부 공동소유가 무조건 유리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다. 2주택일 경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 1주택자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데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2주택자가 되어 종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검토해야 한다.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2018.9.13. 이전에 취득한 경우으로써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장기일반(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가 합산배제된다. 단,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만 가능하다.

⑤ 부모와 동거 중인 자녀는 세대를 분리한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하지만 연로자공제(60세 이상 최대 40%)와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최대 50%)를 받으려면 1세대1주택 소유자만 공제(최대 80% 공제)대상이 된다. 동거 중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가 소유한 1주택은 1세대2주택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동거 중인 자녀와 세대분리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⑥ 마지막으로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세율도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1주택은 3%, 2주택 이상은 6%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전환한 주택은 처분하거나 개인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세감면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주택은 처분하거나 개인전환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나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향후 3년간 인상률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지난해 다주택자로 종과세되어 2천 5백만 원 정도 부담한 경우라면 향후 4년 후에는 1억 원대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걸음
걸음마다
다채로운
항구
도시

이탈리아의 나폴리

VS

한국의 통영

코로나19 팬데믹은 해외여행을 쉽게 꿈꾸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국내에도 이 아쉬움을 달래 줄 명소는 무수하다. 한국의 통영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닮은 여행지로 꼽힌다. 쪽빛 바다를 품은 나폴리와 통영. 걸음걸음마다 절경인 곳. 두 도시 속으로 깊이 빠져 보자.

글. 임산하

지중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다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탈리아의 나폴리는 로마와 밀라노에 이은 이탈리아 제3의 도시다. 해안을 따라 형성된 마을은 전형적인 항구도시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전형성이야말로 나폴리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요소다. 눈앞에서 물결치는 바다와 장엄하게 서 있는 베수비오 화산 사이에 소박하게 자리한 마을은 꼭 자연의 한 양상처럼 보인다. 특히 나폴리의 카프리 섬은 이 풍광이 응축된 휴양지로 사시사철 따사로운 햇볕이 울창하게 비친다. 예로부터 그 아름다움에 매료됐던 로마 황제들이 즐겨 찾았다고 하는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배경 삼아 해안가부터 기슭까지 모여 있는 집집마다 정원을 품고 있는 것만 같다.

나폴리에서 정기여객선을 타면 카프리에 닿는다. 날씨가 알맞을 땐 중간에 ‘푸른동굴’도 지날 수 있다. 해식동굴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 바닷속 하얀 산호모래가 반사되어 동굴 속이 온통 푸르게 보이는 마법 같은 공간이다.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지중해의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선물 같은 덤이다.

한 장의 명화 같은 나폴리

산타루치아는 나폴리 수호신의 이름이자 나폴리의 항구이며, 나폴리가 3대 미항이 된 이유다. 산타루치아 항구는 눈부신 지중해를 감상하기에 제격이다. 질푸른 바다와 웅장한 배경이 되어 주는 베수비오 화산, 그리고 산 중턱에 걸려 있는 문계구름이 조화를 이루어 한 장의 명화를 그려 낸다. 항구인 탓에 멀리서 뱃고동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마저도 나폴리민요의 ‘산타루치아’의 멜로디처럼 들린다.

산타루치아 항구를 한눈에 조망하기 위해서는 산 마르티노 국립박물관의 정원이 안성맞춤이다. 산 마르티노 언덕에 위치한 그곳에서는 나폴리가 간직하고 있는 자연뿐 아니라 산타루치아 항구의 끝자락에 위치한 노르만족의 요새였던 카스텔 델로보 성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게다가 실제 나폴리의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공간 면면까지 볼 수 있어, 과거와 현대의 균형 있는 감상도 가능하다.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은 석양 무렵에 더욱 배가 된다. 붉게 타오르던 해가 바다와 가까워질수록 윤슬은 선명해지고 항구 곳곳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면서 나폴리는 금빛으로 물든다. 나폴리의 사이사이마다 빛이 닿는다. 마치 ‘나폴리’라는 작품에 조명이 켜진 것만 같다.





●
 널찍한 풍광과 그림 같은
 절경이 어우러진
 이탈리아의 나폴리.
 지중해의 반짝임을
 담아 올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음식을 통해 삶을 보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속 리즈 길버트(줄리아 로버츠 분)는 ‘먹는 여행’으로 이탈리아를 선택한다. 특히 ‘생애 최고의 음식을 즐기려면 나폴리에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폴리는 식당 어디든 맛이 출중하다. 추천 메뉴는 단연 ‘나폴리 피자’다. 피자의 탄생지 나폴리에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식당들이 성업 중이기 때문에 전통과 정통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피체리아 브란디(Pizzeria Brandi)’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탄생시킨 곳이다. 1889년 국왕 움베르토 1세와 왕비 마르게리타가 나폴리를 방문했을 때, 요리사 라파엘레 에스포시토가 바질, 모차렐라, 토마토를 이용해 이탈리아 국기의 초록색, 흰색, 빨간색을 표현한 피자를 만들어 ‘마르게리타’라 이름 붙였다.

피자를 먹었으니, 이제 커피를 마셔 볼까. 그런데 ‘입가심’이라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커피는 삶이자 문화다. 실례로 세계적인 기업 스타벅스는 2018년에야 이탈리아 밀라노에 1호점을 오픈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침식사로 통하는 카푸치노와 코르네토를 추천한다. 여행지에서 주민들과 일상을 나누는 것은 색다른 재미일 것이다.

TIP 나폴리는 구석구석 다양한 역사가 숨 쉬는 곳이다. 정해진 트레킹 코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보여행을 하다 보면 뜻밖의 과거와 조우할 수 있을 것이다.



●
 천혜의 자연이 숨어 있는
 한국의 통영.
 눈이 닿는 곳마다 비경인
 통영을 여행하다 보면
 바다의 반짝임이
 마음에도 들어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통영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은 섬

한려수도의 첫 자락. 아름다운 항구도시. 투명한 바다와 울창한 산의 조화로 따사로운 햇볕이 머무는 곳곳마다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이곳, 바로 통영이다.

통영에는 이 아름다움을 압축해 놓은 것만 같은 섬이 있다. 이름마저도 보배로운 ‘비진도(比珍島)’로, 수려한 산수뿐 아니라 풍부한 해산물까지 넉넉해 보배에 비할 만한 섬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비진도는 내항과 외항, 두 개의 섬이 해변으로 연결돼 있다. 동쪽 해변은 파도 소리를 머금은 몽돌로, 서쪽 해변은 발을 간질이는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통영항 여객선을 타고 외항마을에서 내리면 한려수도 바다백리길의 하나인 ‘비진도 산호길’을 걷기에 좋다. 물론 먼저 도착하는 내항마을에서 내려도 괜찮다. 산호길 트레킹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비진도의 작지만 풍성한 아름다움은 도처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진도로 향하는 작은 여객선은 차를 신지 못하기에 무조건 걸어서 감상해야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선물이다. 비진도 산호길의 정상인 선유봉에 오르면 비진도의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 이정표를 따라 오르다 보면 동백나무 군락지를 먼저 만나게 된다. 울창하게 그늘진 군락 속에서 붉은 전등처럼 반짝이는 동백꽃을 만나는 건 봄 여행의 백미일 것이다.



빛이 수놓은 한려수도

바다 사이사이 섬들이 만들어 낸 경이로운 산수에 시원한 바다 내음과 청명한 산 내음이 어우러지는 곳. 통영의 미륵산이다. 미륵산은 한려수도 전망대로 유명한데,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해안을 따라 자리 잡은 마을 사람들의 주거지도 눈에 들어온다. 낮은 오색지붕이 웅기 웅기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절로 마음이 느긋해진다.

미륵산이 있는 미륵도는 1932년 건립한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인 통영 해저터널을 이용해서 갈 수 있으며, 미륵산까지 오르기 힘든 이들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를 타면 된다. 미륵산의 비경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어느새 석양이 찾아올지 모른다. 하지만 통영의 빛은 어둠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이는 통영의 낙조를 두고 한 말일지도 모른다. 한려수도 바다백리길인 ‘달아길’의 끝자락인 달아전망대에 닿으면 마음마저 물들이는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강렬한 붉은 빛이 바닷속까지 떨어지고 나서도 장대한 해안선을 따라 수놓은 낙조는 오래도록 그 빛을 간직한다.

마음도 배도 든든하게 채워 주는 통영

통영의 여기저기를 눈으로 맛봤으니, 이제 입으로 맛볼 차례다. 눈길 닿는 곳마다 절경이니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을 테지만 통영에는 실로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다.

특히 봄을 한가득 담은 ‘도다리쭈국’이 유명하다. 도다리쭈국은 살이 통통한 도다리와 봄철 햇쭈의 조화만으로도 시원하고 향긋한 맛을 낸다. 맑은 바다와 깊은 숲의 맛. 이 작은 음식 속에 통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통영의 또 다른 별미는 단연 ‘충무김밥’이다. 반찬은 무김치와 오징어 볶음으로 단출한데도, 김을 두른 흰 쌀밥 한 입, 반찬 한 입에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 게다가 먹는 재미까지 일석이조가 아닌가. 포장도 간편해 여행자들에게는 맞춤 음식이다.

그런데 포장 이야기에 충무김밥만 떠올리면 서운해질 메뉴가 있다. 바로 ‘꿀빵’이다. 이름 그대로 팔소를 넣어 동그랗게 튀겨 낸 빵의 겉면에 달달한 물엿과 고소한 깨로 맛을 더한 꿀빵.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동그란 빵 속 가득한 달콤함에 폭 빠져 버린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미항(美港)’ 통영은 입까지 달짝이게 하는 ‘미항(味港)’이다. 과연 마음은 물론 배까지 든든하게 채워 주는 고마운 도시다.

TIP 한려수도 바다백리길의 6가지 코스는 모두 통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영을 깊이 느끼고 싶다면 무엇보다 트레킹을 추천한다.

음악을 들으면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에 푹 떨어지는 때가 있다. 멜로디가 웅장해서도 비감에만 젖어서도 아니다. 언제 들었나 떠올려 보면, 아득한 기억 속에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를지 모른다. 가슴으로 기억하는 영화 속 클래식. 오늘은 그 음악의 제목을 정확히 입력하여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

글. 임산하

아름다운 선율 잊히지 않는 음악



제자리를 찾은 왈츠 2번

개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속 태희(이은주 분)와 인우(이병헌 분)의 황혼 속 왈츠 장면을 기억하는 관객은 많을 것이다. 해 질 녘 둘의 실루엣이 점점 걸음을 맞춰 가는 장면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이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아이즈 와이드 셋(Eyes Wide Shut)>에 나온 뒤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익숙한 클래식이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번지점프를 하다> 속 음악으로 더욱 각인되지 않았을까 싶다.

사실 쇼스타코비치는 1975년에 사망한 작곡가로 꽤 현대의 작곡가다. 20세기 초반 소련에서는 대중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장르로 꼽혔던 재즈가 인기였으며, 이 곡은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2번'의 8개 곡 중 왈츠 2번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1999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실됐던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2번'의 원곡이 발견되면서 '왈츠 2번'은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하나로 제자리를 찾게 된다. '제자리'를 찾았다는 곡의 일화가 영화의 분위기를 또 한 번 떠오르게 한다.

따뜻한 봄날, 사랑의 기쁨

영화 <봄날은 간다> 속 은수(이영애 분)의 허밍을 기억하는가. 독일 출생 프랑스의 작곡가 장 폴 에지드 마르티니(1741~1816)의 가곡이자 불후의 명곡이 된 '사랑의 기쁨'이다.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파리의 궁정 음악가로 활동했으며 나폴레옹의 결혼식을 위해서도 작품을 썼다고 전해진다.

영화 속 마지막 이별 장면에 다시금 연주되는 이 곡은, '사랑의 기쁨은 순간이지만 사랑이 남긴 아픔은 영원하다.'라는 노랫말을 품고 있다. 벚꽃이 흐드러진 봄날, 상우(유지태 분)의 뒤로 뿌옇게 멀어져 가는 은수(이영애 분). '사랑의 기쁨'이라는 곡이 담고 있는 반어의 의미는 길게 이어지는 둘의 헤어짐에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봄날. 햇별은 떨어지는 꽃잎에, 청명하게 피어난 잎사귀에, 그리고 옛 추억에 머문다. 봄의 아련한 따사로움을 즐기기에 이 곡만 한 게 또 있을까.



CINE MUSIC

Dmitrii Shostakovich-Suite for Variety Orchestra 中 Waltz no.2
영화 <끝까지 간다>,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에서 벨소리로도 등장한 바 있다.

Jean Paul Egide Martini-Plaisir d'amour
드라마 <도도솔솔라라솔>에서는 피아노 연주곡으로, <그놈이 그놈이다>에서는 오르골 소리로 흘러나왔다.

꾸밈없이 솔직한 내추럴 와인

자연 그대로의 내추럴 와인

전 세계 와인 시장의 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소문으로는 단연 정상을 구가하고 있는 내추럴 와인. ‘와인’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기품, 고상, 우아 등을 와장창 깨트린 내추럴 와인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것’을 지향하는 와인이다. 흔히 와인 하면 대자연의 포도밭과 오크통 속에서 발효 중인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와인 자체가 내추럴인데 어찌서 ‘내추럴 와인’이 있나 싶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완벽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포도 재배에 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와인이 식초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막고 장기보관할 수 있도록 이산화황과 같은 보존제를 첨가한다. 정확히 이와 반대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낸 와인이 ‘내추럴 와인’이다. 물론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유기농 방법을 지키고 와인 제조 시에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으며 이산화황이 필요한 경우 극소량만을 첨가한다.

일반적인 와인이라 불리는 컨벤셔널 와인의 경우 기술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내추럴 와인은 어떤 인위적인 통제가 없다. 심지어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거르지 않는다. 때문에 컨벤셔널 와인과 같은 조화로운 맛이 아닌 다채로운 맛을 갖는다. 가꾸어지지 않은 맛은 첫 입에 장난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느새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여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연을 닮은 와인이 있다. 기술적인 통제 없이 만들어진 내추럴 와인은 맛뿐 아니라 독자적인 레이블(Label)로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 내추럴 와인이 담고 있는 철학을 음미해 보자.

글. 임산하

태초의 와인, 그 고유함에 대해

20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내추럴 와인 운동이 시작됐다. 저명한 생물학자이자 화학자인 쥘 쇼베(Jules Chauvet)는 와인 과학자로도 불렸는데, ‘현대적 농업 기술에서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그의 한 마디가 파격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루아(Terroir, 포도밭을 둘러싼 전반의 환경) 내의 무수한 변수가 만들어 낸 ‘진짜’의 맛을 가진 내추럴 와인. 병입 후에 2차 발효가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품종의 포도라도 생산자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내추럴 와인의 자연적인 변수를 즐기는데, 이들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소는 레이블에 있다. 내추럴 와인은 지역과 품종 등을 내세우는 고전적인 레이블이 아닌 독자적이고 감각적인 레이블을 사용한다. 레이블만으로도 내추럴 와인 생산자의 철학과 개성을 엿볼 수 있다. 고전적이라 불리던 와인이 이른바 ‘힙스터’ 문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있는 셈이다.

고유의 개성과 순수한 자연이 그대로 담겨 있는 내추럴 와인. 누군가에게는 ‘군더더기’ 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는 자연의 속성이다. 재단하지 않는 와인. 약 8천 년 전 인류와 처음 만났던 와인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다.

IBK기업은행이 추천하는 이달의 펀드

위험등급 투자성향

<p>2등급 고위험 고수익</p> <p>마이더스 책임투자 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기업 투자</p> <p>마이더스 아시아리더스성장주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p> <p>한국투자 한국의제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의 수혜업종에 주로 투자</p> <p>미래에셋 글로벌코어테크EMP 글로벌 IT산업(반도체) 성장 수혜</p>	<p>3등급 고위험 고수익</p> <p>한국투자 네비게이터1호 국내 주식시장 상승 전망</p> <p>IBK 플레인바닐라 국내 EMP펀드 설정액1위</p>	<p>4등급 중위험 중수익</p> <p>신한BNPP 삼성전자알파 반도체 경기 상승전환으로 삼성전자 가격 상승 기대</p> <p>신영 밸류고배당40 가치배당주와 우량채권에 투자</p>
<p>5등급 중위험 중수익</p> <p>마이더스 우량채권 유동성 증가 및 채권시장 안정</p> <p>NH-Amundi 모아모아15 우량채권 및 주식(15%이내)에 투자</p>	<p>6등급 저위험 저수익</p> <p>IBK 단기채 단기자금 유치</p>	

IBK플레인바닐라EMP [혼합-재간접형 3등급] (작성 기준일 : 1월 31일)

고금리 채권, 고배당이 기대되는 인프라, 배당주식, 고성장 혁신기업 및 신흥국 관련 ETF에 고른 분산투자를 통해 배당수익과 투자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주가상승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

주요 포인트 (장기 적립식 추천)

글로벌 저금리시대 도래로 인프라, 고배당 자산의 투자매력 상승
시장 상황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ETF 비중조절로 선제적인 위험관리

펀드 기본정보

펀드유형	혼합-재간접형
위험등급	3등급
설정일	2019-1-14
벤치마크	없음

운용규모 / 판매금액 현황 (억원)

전체 운용규모	3,202
당행 판매액	175(-)

수익률 현황 (기간수익률 %, %순위)

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36개월
수익률	7.70	7.37	10.71	34.43
%순위	42.86	52.63	24.03	8.05

보수 및 수수료

기간	클래스 A	클래스 Ae	클래스 C	클래스 Ce
선취수수료	1.0%	0.5%	없음	없음
총보수	연 1.21%	연 0.86%	연 1.46%	연 0.99%
환매수수료	없음			

매입 및 환매절차

기준시간	매입 체결일	환매	
		기준가적용일	지급일
17시	전	3영업일	4영업일
	후	4영업일	불가

주요 투자대상

포트폴리오	비중(%)
성장(Growth)	56.8
국가형	17.3
섹터형	39.5
인컴(Income)	10.0
대체자산형	10.0
채권형	0.0
유동성	25.4
Special Situation	7.8
소계	100.0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고민이라면?

토지보상, IBK와 함께 의논하세요



국세청 및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세무·부동산 전문가들이
토지보상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표전화 (세무) 02-2031-5700, 5449 / (부동산) 02-729-7189, 6954

• 토지보상 관련 세무·부동산·금융 컨설팅 제공

- 토지보상 주요절차, 사후 관리 포인트, 상속과 증여에 따른 절세전략 등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전문가 상담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운영방안 수립지원 등
- 전국 18개 WM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

• 기타혜택

• VIP행사 우선초청 기회 제공

사랑나눔음악회, Private Top 클래스, WIN CLASS콘서트 등

• 우수고객 특화서비스 제공

경조사 지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대행, 증여신고 무료대행 등

※본 서비스는 별도 기준에 따라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4255호 (2020.10.20) 게시기한 : 2021.10.20, 출금번호 : EU34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익는 가맹영업점 또는 E&G고객센터 ☎1566-266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E&G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민없이☎1332, E&G기업은행 : ☎080-800-0104) - E&G기업은행은 금융·형용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원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60, e-mail:ethics@ibk.co.kr)